

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. 3. 2(수)
- 제 출 자 : 이봉수 의원 외 8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회부일자 : 2017. 3. 2(수)

4. 제안 이유

- 현재 한·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, 일본의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곳곳에 설치하여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되새기고 있음
-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일본군 관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게 하고자 상암택지개발 시 설치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임.
- 일본군 관사 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

5. 검토의견

○ 본 결의안은

지난 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한 일본이 자국대사를 귀국시키고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중단하는 등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위안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없이 10억 엔의 돈을 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며

○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,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상암동 일본군 관사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임

○ 검토의견으로는

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·도의적 책임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없이 평화의 소녀상을 문제 삼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○ 또한,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.

○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구 역사보존건물인 일본군 관사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자는 결의안은 시기적 적정성과 위치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마포구와 일본 카츠시카구가 자매결연 도시인 점, 일본군 관사에 대한 주변의 다양한 민원이 공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

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주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며,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아울러 마포구 관광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지자체마다 차별화 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구가 보존하고 있는 일본군 관사 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면 역사와 연계한 교육·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